

북방의 기계제작기지가 경사로운 환회로 하여 불도가나마냥 뚫어낸 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힘있는 기계제작기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라남관광기계연합기업소 로동계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그들의 심장마다더러 세계에 높이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려는 뜨거운 충정의 맹세이다.

지금 이곳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투쟁해는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대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이 따로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라남의 로동계급은 누구나 8월을 가슴에 소중히 안고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에 기업소를 찾으신것도 8월이고 세 개기 첫째에 이곳을 찾으신것도 8월이며 세해전 삼복철강강군의 나날에 기업소를 찾으신 달도, 기업소현대의 현대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신 달도 다름아닌 8월이다.

하지만 그들이 8월의 나날들을 언제나 잊지 못해하는것은 결코 그때서만이 아니다.

절세위인의 믿음속에 세차게 라오르는 비약의 봉화

라남관광기계연합기업소에 높뛰는 대혁신의 숨결

바로 그 렉사의 8월과 더불어 라남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올랐고 그 달과 더불어 시대의 봉화로 다 시한번 활활 솟아올랐다. 라남로동계급이 8월을 사랑하는데는 그 때문이라고 격정을 터치면서 기업소의 한 일꾼은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강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던 나날들을 되새기며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업소로동계급은 지난해 정초부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강선 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인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찾으셨다.

그날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새로 제작된 기계들과 기술개진된 공정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방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과학과 기술을 생산에 밀착시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했던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려고 그 완강하게 실천하여 기업소의 물질 기술적태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기계 제품들을 팡팡 만들어내고있는 기업소일꾼들과 로동계급,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지필줄 모르는 창조력은 실로 무한대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남의 높뛰는 숨결에서 강성대국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시는듯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에서 점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기업소일꾼을 뜨겁게 바라보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라남의 봉화는 꺼지지 않았다.

라남의 봉화가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라!

순간 기업소일꾼의 가슴은 온 우주를 통째로 안은듯 한 심정으로 떨림과 불꽃이올랐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의 믿음에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올리는 일꾼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근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라남의 봉화를 지켜주시던 뜻깊은 자리에서 안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언제나 가슴에 소중히 안고 살아온 일꾼이였다.

북방의 기계제작기지를 마음에 두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초강대 강행군의 길에서도 언제나 라남의 로동계급을 잊지 않고계신 위대한 장군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서 라남의 봉화가 뒤흔는 불길마냥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려고 그 트로트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은 진정 라남로동계급과 숨결을 같이하시며 정을 함께 나누시는 위대한 아버지이시였다.

북방의 기계제작기지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꽃을 날리며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라남의 봉화.

그것은 정령 라남로동계급이 다시한번 첨단들과진의 불길속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우뚝 솟아올라 한 무한대한 원동력이였다.

우리는 이 열연이 안아온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중요대상설비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대고있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가슴벅차게 느낄 수 있었다.

이것 못할 그날은 나라 인민의 축원의 마음이 어린 인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기업소일꾼들에게 지난해 산하공장을 돌아보면서 모체 공장인 이 기업소에 가보기로 약속한 일이 있기때문에 오늘 이렇게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자신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것을 자개로 꾸러놓고 당이 존귀함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 일꾼들의 가슴이 얼마나 세찬 격정으로 북받쳐 울랐을까.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그것도 8월의 제물주는 무뎠던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창하신 공작장, 소형가공작장 등 여러 생산공정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 현대화의 방향을 명쾌하게 가르쳐주시고 로력문제, 종업원들의 살림진전문제 등 기업소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께서 주신 중요한 대혁신비상과제를 1년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수행한 기업소일꾼들과 로력혁신자들을 기쁘게 부르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뜻밖의 영감을 받아온 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감격과 기쁨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을 지닌것으로 하여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해주는 바다마냥 설레이었다.

이것 못할 그날은 나라 인민의 축원의 마음이 어린 인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기업소일꾼들에게 지난해 산하공장을 돌아보면서 모체 공장인 이 기업소에 가보기로 약속한 일이 있기때문에 오늘 이렇게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자신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것을 자개로 꾸러놓고 당이 존귀함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 일꾼들의 가슴이 얼마나 세찬 격정으로 북받쳐 울랐을까.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그것도 8월의 제물주는 무뎠던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창하신 공작장, 소형가공작장 등 여러 생산공정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 현대화의 방향을 명쾌하게 가르쳐주시고 로력문제, 종업원들의 살림진전문제 등 기업소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께서 주신 중요한 대혁신비상과제를 1년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수행한 기업소일꾼들과 로력혁신자들을 기쁘게 부르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뜻밖의 영감을 받아온 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감격과 기쁨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로써 만족과 기쁨을 표시하시였는지 그 깊은 의도를 미처 알지 못하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에서 발견하신것은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었다.

라남의 봉화는 기업소의 분위기와 공조로 생산해낸것도 대단한것이였지만 땅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고 두루뎛듯,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는 그 정신에 반영된 비약의 불씨가 더없이 귀중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후 다른 곳도 아닌 라남에서 그곳 로동계급이 새 세기의 첫 봉화를 추켜들도록 하신것은 바로 그래서였다.

라남의 봉화는 기업소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었다.

이곳 로동계급은 라남의 봉화를 추켜든 선봉부대답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시면 열, 백을 헤아리며 그것을 어지없이 집행해나갔다.

그 나날에 그들은 수자조종장치, 수자조종장치를 받아들이고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일을 두고 우리 장군님 또는 얼마나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였는가.

세해전 8월 어느날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자조종장치를 받아들이고 생산한 설비가 아주 좋다고 하시며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기업소일꾼은 그이를 우러르며 앞으로 기업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어금이 든든해야 굳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것처럼 기초가 든든해야 그런 설비들을 제작할수 있다고 하시며 기업소의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였다.

이러 그이께서는 한 설비제작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아직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작이 결반이라고 새로운 설비를 만들겠다고 달라붙을것이 마음에 든다고, 잘하였다고,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만들고있는 설비를 완성하면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제부가 늘어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지고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함경북도의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던 그이께서는 시간이 없어 라남관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지 못하는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며 기업소 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길이 새겨지고 그이의 크나큰 믿음속에 비약하는 라남관광기계연합기업소.

멀지 않아 최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생산공정들에서 현대적인 대상설비들을 팡팡 생산하게 될 때 라남의 봉화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킬 것인가.

기업소를 언제나 잊지 않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 건설대전을 선도하시며 지휘하시고 그이와 더불어 뜻도 운명도 함께 하는 충직한 라남로동계급이 있기 때 라남의 봉화는 앞으로도 영원한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 당창건 사적 판에서 - 본사기자 장 성 복 씌음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새롭게 꾸러놓은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 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업소에 든든한 절세위인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전력생산에 있는 힘과 열정을 다 바

쳐다오며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업소에서는 연혁소개실을 인식교양적의의가 크게 보다 훌륭한 구획 계획을 세우고 대중을 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백두산위인들의 헌신적로고 때죽은 사랑속에 기업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더

욱 실감있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새로 꾸러진 연혁소개실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당위원회에서는 당, 근로단체 조직별로 연혁소개실에 전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문답식학습경연과 해설경연을 실시하여 조직 선행하였다. 로동통신원 리 붉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철신의 길에서

크나큰 믿음과 기대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326전선공장을 찾으시고 그 공장 기동 예술선동대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작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은 인민군부대들의 예술소품공연과 군인가족예술소공연을 관람하고 그들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작품창작과 창조, 연기형상과 공연활동에 혁명적근거인민이 맥박치게 하였다.

그들이 무대어 울린 대화사와 선동 《수령님 유혼을 높이 받들고》, 《아기와 선동 《장군님의 령도업적 전선생산으로 빛내여가자》, 제창이야기와 선동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등 작품마다에는 당정권이 민감하게 반영되었으며 자기 단위의 실정에 어 꼭 들어맞아 교양적의의가 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공작기

평범한 공작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이 진행하는 소박한 공연을 보시고도 이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바로 여기에는 하나의 예술소품공연을 진행하여도 정적대가를 뚜렷하고 실감있게 진행하여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선동대원들이 고부추동할 대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왜 불합격이라고 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한층을 좋아하지 않습니 때문이라고. 목욕탕에서 누구나 다 한층을 원하고 만 볼수 없다. 그중에는 목욕만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

일꾼들의 가슴은 커다란 충격으로 높뛰었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목욕탕 물온도를 35°C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그애야 한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좋고 로인들에게도 좋을것이라고, 우리는 인민을 위해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그것이 실지로

인민생활에 이익이 되게 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는 인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하느처럼 여기시며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완공된 백마-철산물길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드넓은 백마호와 물길을 따라 용용히 흐르는 판개수를 바라보시면서 일꾼들에게 백마호가 평장하고, 여기에 와보면 사람의 힘과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마호와 수백리에 뻗어나간 물길은 세상에 내놓고 몇몇이 자랑할수 있는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물이 류달리 맑고 깨끗하다고, 이 물을 먹는물로 리용하면 좋을것이라고, 백마호수면경치가 좋아서 명칭날이나 쉬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

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자르로운 어머니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일꾼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진군을 승리로 이끄시며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령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기적과 위용을 창조하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철속도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의 앞에는 만능의 보검인 선군의 총대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변함없는 신념이여 이기십시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십년동안 다져온 천만 군민의 정신력과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고조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시작되던 지난해 정초 오중을 7번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시찰은 선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변함없는 의지의 파시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령도의 품속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는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첫 번째로 대한 현지시찰로 대고조의 첫 전투에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강행군을 이어

가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지금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는 지난해 3월 어느 한 포병부대를 찾으신 무적불침의 기상이 나뉘지는 군인들의 포사격훈련을 보아주시며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이 더 세차게 타번지도록 이끌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엄한 영상이 뜨겁게 어려있다.

그때로 말하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인 우리의 평화적위성방사를 막아보려고 남조선과 주변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전개해놓고 요격이요 뒤흔하면서 모험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던 시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당백병사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습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대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인민군인들이 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조국의 초소를 금성철벽으로 지킬데 대한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방사선을 늘리고 분별없이 날뛰는 적들에게 단호한 경고와 압박을 보내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가 발표되였다.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진드리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우리 인민군대의 멸적의 기상이 어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가 나가 세계여론은 들끓었고 우리의 평화적위성방사를 막아보려고 소동을 벌리던 적들은 전멸하였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태양질을 맞으며 선군승리의 추파가 장쾌하게 퍼져올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

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선군조선의 국력을 파시한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더욱 고조되고 사회주의 건설장들에서는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인민군대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아!》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도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거창한 대자연계조사업인 최첨단발전소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몸소 높고 험한 산밭을 넘어서며 건설현장을 여러차례 찾으신데 있어서 공사에 참가한 전 군건설자들이 최첨단발전소건설에서 혁명적근거인 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고 역군 힘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러면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은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십자가 새겨안고 최첨단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철속도를 창조하였다.

최근 20여년간 건설한 발전소들 중에서 규모와 공사량이 큰 건설대상인것으로 하여 기존발전소도 볼 때 10년이상은 걸려야 하는 최첨단발전소건설.

지난 시기같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처럼 방대한 공사를 3년동안에 끝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인민군인들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에 토대하여 발전소건설에서 대중적위업에 우리들의 헌신성을 발휘하며 파급한 공적전을 벌려 벌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첨단발전소건설을 2012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철속도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10여년전 우리 혁명앞에 것처럼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쳤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최첨단발전소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계조사업과 중요대건설업이 지금 선군의 위력으로 천백배로 다져진 천만 군민의 정신력과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펴시하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강선과 김철, 성강과 황철, 대안과 락원, 홍남과 남흥을 비롯하여 대고조의 기상이 나뉘지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혁명적근거인 정신이 높이 발휘되어, 생활화생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대고 나라의 이름은 꽃마다에 선군시대의 창조물들이 보란같이 일떠서고있는 오늘의 현실.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의 총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대고조진군이 계속되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이 자랑스러운 현실은 혁명의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조국번영의 길이 있다는 민족대번영의 철리를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번영의 새로운 정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찰정에서 대중적위업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본사기자 김 용 진

대고조는 앞을 닦아나갈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면 기쁘고 만수무침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자강도라고 하시며 이렇듯 바쁘신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도 이 렉사의 땅을 자주 찾으신다. 어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찾으신다면 어떤 격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강철의 손과 정지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어느날 자강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포시대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며 시종 기쁨의 미소를 지니시였다.

만포제련소, 만포방사광산, 만포각... 도시건설과 경영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또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터만이 아니라 거리와 마을, 건물과 도로가 다 국경도시답게 하나같이 정갈하고 규모있었던 먼 지방도시들도 실용성있게 잘 배치되어있었다. 가로의 넓이는 넓고도 알맞도록 설치해놓으니 시민들이 좋아하였다. 길가에 은행나무와 수삼나무도 많이 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만포시 제일이

라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좋고 생산과 인민봉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라고, 사회주의건설이로 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면서 만포시 일꾼들이 일을 잘한다는 데 대하여서는 알고있었는데 오늘 와보니 진짜 일욕심이 많고 간간하고 손탁이 세다는것이 알린다고, 확실히 자강도 사람들의 일본새가 다르다고, 모든 일을 정성껏 한다는것이 눈에 띄게 알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최상최대의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만포시를 여러차례 찾으신어 나이가 방 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날아주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공적은 우리 두시고 그 성과로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안겨주시고 일꾼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송구스러워 가슴 뚫어졌다.

시의 한 책임일꾼이 북받치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그이께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는데서 만포시가 전국의 앞장에 설게 할것을 약속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배심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에서 담보가 앞서나갔다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고, 얼마든지 전국의 앞장에 설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새힘과 용기로 가슴을 열어주시고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자강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나뉘치고 벌써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자강도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가 자강도에 오면 정말 기쁘고 만수무침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자강도라고...

강제정도의 창조물들처럼 어떤 일도 속도와 질을 최상최대 보장하면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제 힘으로 알맞고 견디게 하고있는 미더운 자강도사람들.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고도로 보장된 만포제련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만포방사광장 지배인, 생산정성화의 드세찬 동을, 인민을 위한 헌신적부담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만포시의 봉사자들 그리고 일상동태가 되어 자기가 그것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대인적인 일꾼들과 근로자들...

바로 그것이 너무 기쁘시며, 그 애국, 애민의 노력과 투쟁이 깃든 창조물들을 만나는것이 그러도 기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만수무침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자강도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는것이다.

진정 자강도나 우리 인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문명하게 살게 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철세의 애국자.

위대한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수무침이 다 풀리는것 같은 하느같은 사랑과 믿음이 어린 귀중한 말씀이다.

은 나라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만포시처럼 자기 자신이 고장을 사회주의선군으로 전변시키자!

이 신념의 맹세가 뜻깊은 올해의 대고조진군에 힘차게 울려대지고있고 머지않아 이 땅우에는 반드시 강성대국이 일떠설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한생을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강서구역 삼묘협동농장 축산작업반장 신재남동무

에로부터 유명한 강서약수터와 고귀한 민족유산의 하나인 강서세무역을 지나 우리는 축산작업반에 다녔다. 자연지적으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축산작업반이 2중3대혁명붉은기만위인 강서구역 삼묘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이 자리잡고있었다.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로 하여 온 나라에 소문이 난 작업반은 그 면모가 얼마나 희한한지 한계 농장 축산작업반이라기보다 하나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방불케 하였다. 수백마리 수송능력에 뛰어난 오리와우리, 토끼우리, 염소우리를 비롯하여 즐비하게 들어있는 집집승우리와 그 들은 부지를 규묘있게 둘러막은 방울울라터 그리고 작업반의 구내와 주변을 뒤덮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며 이채로운 동물조각들...

그 모습앞에서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던 우리는 이렇듯 훌륭한 결실을 맺어온 미더운 주인공들의 투쟁이야기를 듣고싶어 작업반원들과 마주앉았다.

하지만 그들이 펼쳐놓은것은 자기들이 아닌 작업반장 신재남동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신재남동무가 없는 작업반의 오늘을 생각할수 없었다면서 소중한 추억들을 더 들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서 40여년간 일해오는 분조장 김경화동무가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작업반장동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희극 《산울림》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자 작업반원들은 그 비유가 참 신중하다고 저마다 무릎을 쳤다.

우리는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름없는 농장의 평범한 축산작업반장인 신재남동무, 과연 그는 어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있기에 작업반원들은 그를 우리 시대 인간들이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순간순간 비추

어보는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들과 나란히 세우는것일까.

우리의 취재는 이러한 의문을 푸는 과정으로 되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레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면 웅대한 포부와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니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십년전 어느날 30대의 젊은 분조장 김경화동무는 밤늦게 퇴근길에 나갔다.

축산반마루에 솟은 못별들을 바라보며 건던 그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피어올랐다.

(참 영웅하다니까.)

별들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두눈을 반짝이는 신임분조원 신재남의 모습이 눈앞에 하루 다가왔다. 그가 오늘 분조장으로서 사양관리로력을 겸임하는것을 의견을 내놓았단 것이다.

나이는 분조원들이 우릴 때와 그리고싶지 않았고, 하지만 오랜 경험과 기술적자산에 기초하여 매 관리공당 집집승우리를 정한것이나 이제 할부로 형클수 없노라고 하였으니 신재남동무는 자기의 제의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다가대운동을 벌여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 천리마시대 방직공들의 모범을 우리 분조에서도 따라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분조원들은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의 광경을 그려보며 김경화동무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하긴 그의 말이 옳기야 옳지. 매일 다시 토론했어야겠어.)

그 후 분조에서는 집체적지혜를 합쳐 사양관리로력을 겸임하나 줄일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신재남동무의 영웅한 생각은

나날이 가치를 쳤다. 잡판목이 뒤덮인 축산산을 통해 방목지로 전환시키면 어떨겠느냐는 등, 지금 있는 집집승우리를 활 활 털어내고 덩실하게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등, 어미태지도 수십마리에 머무르겠지 않지 하고 따돌려 버리자고 하는 등... 그런 그를 두고 분조원들은 꿈많은 총각이라고 불렀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러 신재남동무가 축산작업반장이 되었는데 김경화동무와 작업반원들은 그의 꿈과 리상에 현실로 꽃피어 아름다운 레일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레일이란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피우는 꽃인 동시에 불굴의 신념과 노력으로 맺는 열매였던것이다.

신재남동무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작업반장으로서 시작하였지만 그의 심장은 크나큰 신심과 락판, 불같은 열정과 기백으로 세차게 놀려왔다.

작업반의 레일을 그려보며 그가 그린 설계도만 하어도 수백장이 넘을것이라고. 그러나 하나의 설계도가 자기들의 실정에 불을 달았다고 작업반원들은 추억하고있다.

아름다운 희망과 불같은 열정을 안고 작업반의 물질적전도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투쟁으로 작업반원들을 이끌어온 그 나날 신재남동무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였는 고향 땅에 새겨진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발자취였다.

농업생산을 늘여 농장원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 고, 산을 끼고있는 유리를 조건에 맞게 축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결을 때땀이 가르쳐주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꽃피우는 길에서 충정도 애국의 빔빔을 찾아 기를 지게 걸구어 집집승우리로 리용할 농작물생산을 늘였으며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을 때 일부 사람들은 무슨 자재가 있어 그것을 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때 신재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자고 펼쳐나서면 방도는 나지마련입니다.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막는 로동당시대에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나해 신재남동무는 작업반원들에게 또 한장의 설계도를 펼쳐놓았다. 튼튼한 종축세대와 새끼생산체계를 갖추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으로 손꼽히는 작업반이었지만 선진시대의 요구에 도달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였던것이다.

하여 작업반원들은 다시 펼쳐나갔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와 혁신만을 아는 우리 작업반장동무의 기력과 일욕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도 들었기때문입니다. 그때로 오는과 같은 공헌화, 수렴화 된 일터, 누가 와보아도 부러워할만한 한 멧덩이축산기지가 생겨났습니다.》

돼지우리를 다시 번듯하게 일떠세운것은 물론 구내의 곳곳에 이채로운 동물조각들도 모두 작업반원들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작업반당세 포머시 한글학동무

완성하고 수의방역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갔다. 그런가하면 잡판목만 무성하던 축산기승의 70여정보를 쓸모있는 방목지로 전환시키었으며 썩을기를 찾아 자연호흡식수초화를 실현함으로써 작업반과 마을에서의 물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지난해 신재남동무는 작업반원들에게 또 한장의 설계도를 펼쳐놓았다. 튼튼한 종축세대와 새끼생산체계를 갖추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으로 손꼽히는 작업반이었지만 선진시대의 요구에 도달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였던것이다.

하여 작업반원들은 다시 펼쳐나갔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와 혁신만을 아는 우리 작업반장동무의 기력과 일욕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도 들었기때문입니다. 그때로 오는과 같은 공헌화, 수렴화 된 일터, 누가 와보아도 부러워할만한 한 멧덩이축산기지가 생겨났습니다.》

돼지우리를 다시 번듯하게 일떠세운것은 물론 구내의 곳곳에 이채로운 동물조각들도 모두 작업반원들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작업반당세 포머시 한글학동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열망진 산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신재남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누구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름다운 리상, 숭고한 포부를 지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 나아가며 시대를 전진하는 창조적 산물럼, 애국의 산물럼을 높이 올릴수 있으며 또 우렁차게 확명할수 있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전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 명 숙



신 재 남 동 무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며 대동강과 수송합농장과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에 대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대규모공업생산지대로 꾸밀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껏 지원하고있다.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에서 로력적힘을 세우고있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란봉구역 전우동에서 살고있는 문해방동무는 대동강과수송합농장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다.

근 10년간 20여차례 걸쳐 백두산지구건설과 대동강과수송합농장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오고있는 그는 얼마전에도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물자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대동강과수송합농장건설에 찾아가 함입는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인민보안부 아바단위 부원 조혜옥동무도 대동강과수송합농장건설을 힘껏 돕고있다.

여러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마련한 10종에 500여점에 달하는 작업공구를 비롯하여 많은 물자를 대동강과수송합농장건설에 동원된 인민보안부사단에 보내준 그의 아름다운 소행은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솟아난 대우주의 과일생산지인 대동강과수송합농장을 더 번듯하게 꾸릴 일념을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사람들과는 어느 한 중앙기관에서 부원으로 일하고있는 황재봉동무도 있다.

대동강과수송합농장 살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치는 데 적으나마 기여할 불타는 마음이고 그는 지난 3월과 4월에 가정에서 짓섯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안고 건설장으로 찾아가다. 아낌없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는 그의 애국적소행은 돌격대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평성운송사업소 부원 리인숙동무는 가족과 함께 많은 생활필수품과 자재를 마련해가지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건설장에 찾아가 돌격대원들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수령님의 구상대로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만들고 인민들이 사는 그 어디서나 과일향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과수원들을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과수업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앞장에서 받들어가자는 그의 뜨거운 소행은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위훈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주었다.

몽라도도지도국 아바단위 지내인민으로 일하고있는 김경신동무도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그는 여러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이것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더 좋은 레일을 자기의 힘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순결한 양심과 의리를 다 바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된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소서

우리 나라 김금석선수 남자력기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광둥에서 진행된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우리나라의 김금석선수가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15일 69kg급경기에서 출전한 그는 경기에 편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종합 324kg을 들어올림으로써 맞다른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제 1위를 하였다.

한편 우리 선수들은 15일 까지 이룬 경기들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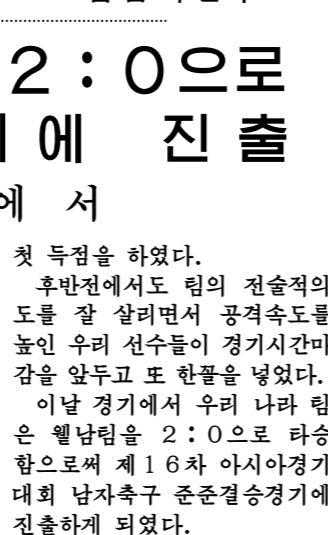
김은국, 차금철선수는 남자

력기 62kg급과 56kg급경기에서, 박현숙선수는 여자력기 58kg급경기에서, 설정선수는 여자유술 70kg급경기에서 각각 제 2위를 하고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탁구단체경기(남, 녀)와 여자단체기(남, 녀) 등목표사격경기에서, 홍국현선수는 남자유술 66kg급경기에서, 김수경, 안금애선수는 여자유술 63kg급과 52kg급경기에서, 정춘미선수는 여자력기 58kg급경기에서, 리향심, 조영숙선수는 여자개인 10m이동목표사격경기과 10m공기

권총사격경기에서 제 3위를 하였다.

김금석 선수



김금석 선수

우리 나라 팀 웰남팀을 2:0으로

다승, 준준결승경기에 진출

남자 축구 경기에서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팀이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16강전에서 웰남팀을 이기고 준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조별리그경기들에서 남조 선린과 락페스타나팀, 요르단팀을 상대로 우리 나라 팀은 3조에서 1위를 하고 승자전

단체에 나갔다.

16일 우리 나라 팀과 웰남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우리 팀은 주체적인 경기원칙과 방법을 구현하여 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였다.

제치없는 공물기와 련락으로 상대방문을 위협하던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에 통쾌하게

첫 득점을 하였다.

후반전에는 두 팀의 절실적인 도를 잘 살려서 공격속도를 높인 우리 선수들이 경기시간마감을 앞두고 또 한골을 넣었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웰남팀을 2:0으로 타승함으로써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준준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팀 타이팀을 2:0으로

다승 여자 축구 경기에서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경기에서 시작되었다.

7개 참가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기는 매 조에서 1, 2위를 한 팀이 승자전 단계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 나라 팀은 타이, 일본

팀과 2조에 속하였다.

16일 우리 나라 팀과 타이팀과의 첫 경기가 있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전인공적과 전인방어를 잘 결합시키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던 우리 팀이 전반전에 첫 골을 넣게 된다.

우리 팀은 후반전에서도 드센 공격을 들이댔으로써 또다시 멋진 득점경기를 하였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팀이 타이팀을 2: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 팀은 18일 조별리그경기 두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

단이 1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관제부분 일군과 주요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공사참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16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 갔다.

철의 도시에 울리는 신념의 노래

대고조의 불화를 높이 들고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김철에는 밤마다 휘날리는 붉은 기발이 있다. 그것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녀성근로자들에 주재된 기발이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자기앞에 맡겨진 하루일을 끝내고 저녁에는 철강재생산전투장에 달려나가 일손도 도와주고 경제선동도 벌리는 녀성근로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우리 녀성지인대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곤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김철의 로동계급을 통해 대고조의 선봉에 세워주시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련합기업소 보수2직장 박명옥동무는 교대시간이 다가올수록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 하우 하였다.

하루일을 끝낸 그는 주체철용방로직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주체철용방로직장에 들어서며, 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이 그에게 물었다.

《동무도 한옥련(소속부대)요?》

《?!》

의해하는 그에게 련합기업소일군은 10여년전부터 하루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녀성근로자들

일이 끝나면 철강재생산전투장을 찾아가 일손도 도와주고 노래도 불러주고있는 한옥련동무를 아끼고있는 그였다.

그날 주체철용방로직장에서 밤이 깊도록 일손을 돕고난 박명옥동무는 퇴근길에서 한옥련동무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한마디 말도 없이 웅은 일터를 혼자서 하고있으니 언니 리기주의자야.》

이름날 그는 하루일이 끝나 자기앞에 맡겨진 하루일의 김경, 류봉순동무들과 함께 한옥련동무를 찾아갔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다시 지원의 길에 나갔다. 그들은 쇠물길정리, 배관관리사업도 하고 설비보수전투를 벌릴 때에 필요한 자재도 보강해주었으며 철합이던 오라철을 벌리며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면서 한옥련동무를 비롯한 보수2직장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날개를 달고 퍼졌다. 얼마후에는 련합기업소 로동보호를자공급국의 송명숙, 고숙기계수리 1직장의 조순옥동무들도 그들과 함께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김철로동계급을 통해전투의 선봉에 내세워주시였는데 지금껏 자기앞에 맡겨진 일만 하는것으로 만족한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우리도 동무들처럼 하루일이 끝난후 철강재생산을 위하여는 끝까지 이바지하겠사.》

그들만이 아니었다. 설계실

의 김춘옥, 김복녀동무들을 비롯한 보수1직장, 주물직장의 7명 동무들도 그들과 걸음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소행은 산울림이 되어 김철의 녀성근로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다졌다. 어느날 김철의 로동자합숙 11명 녀성들이 하루일을 끝내며 버섯 생산현장에 달려갔다. 지원자들의 대렬은 날이 깊어 따라늘어났다. 그들중에는 모녀도 있고 재대도 있었다. 후방방에서, 당세로에서도 있고 후방방문의 삼정지배인도 있었다. 그러나 저녁이면 누구라없이 지원자가 되어 어둡게 휘는 전투장마대에 달려나와 일손도 돕고 경제선동도 벌리며 전투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녀성지인대를 짓고 소대들을 편성하였으며 붉은 기발을 수여하였다. 《그때부터 대장 한옥련동무는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붉은 기발이때서 소대마대에 이름을 하달하였고 녀성지인대원들은 창조와 혁신의 노래 높이 불러 부르며 일터들로 향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달려간 일터들 가운데는 열간압연직장도 있다.

어느날 열간압연직장 가열로 보수전투장에서는 일군들의 모임이 있었다.

《가열로내부정리를 빨리 끝내야 로보수기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은

고 다른 소대를 도와주는것은 우리 지인대의 기용입니다.》

그러면서 4소대장이 말하였다.

《동무들, 가열로내부정리사업을 와닥닥 끝내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말이 호응하여 지인대원들은 힘껏 《적기》를 부르며 전투원들의 일손을 돕기 시작하였다.

일군은 뜨거웠을 삼키었다. 그러는 그에게 지인대의 2소대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 지원의 길에 나선것을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김철의 맘머느리구실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해주는 밥도 좀 먹어보자는 겁니다.》

일터에 즐거운 웃음이 흘렀다. 그 웃음을 타고 이런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정말 남편들이 저녁밥을 가지고나왔어요.》

참으로 이채로운 김철의 반풍경이었다.

그날 녀성지인대원들은 전투원들을 도와주고 고무해주며 어렵다고 하던 가열로내부정리를 달콤히 끝내었다.

또 하루 애국현신의 땀을 함뿍 뿌리고 열간압연직장 가열로보수전투장을 떠나며 그들은 《어디든 게슴치》 그리고 《대군장님》의 노래를 불렀다.

창조적 동을 우렁찬 구내길을 발맞춰 힘차게 걸어가는 대 앞에는 붉은 기발이 세차게 휘날리고있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친 자식의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우리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따듯이 봉사해주고있는 랑방구역련의봉사사업소 박순희동무의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그가 우리 동안의 전쟁로병들과 인연을 맺은것은 몇해전이었습니다. 그후부터 그는 혁명과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곤 합니다.

그는 매달 동안의 로병들의 리발날자를 정해놓고 정성껏 리발을 해주어 우리들을 《선남》으로 내세워주곤 합니다. 몸이 불편한 로병들을 위해서는 집에 찾아가 이동봉사를 해주었습니다.

랑방구역 정오1동 17인민반 조 병 권



실현능력을 겸비한 기술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간다. 평양기관사건물학교에서— 리진명 찍음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강점과 통치는 천추 만대 용납 못할 특대형의 국가조직적범죄이다

일 제 의 조 선 민 족 말 살 죄 행 록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일제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강행한 때로부터 105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강점기간 일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력사상 일제가 있어본적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강행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뜨였다. 조선사람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1938년 이후에만도 840만여명을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대학살만행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조선사람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한것이다. 일제는 극악한 무단통치, 《문화통치》, 파쇼배로통치를 실시하면서 수백은 조선사람을 죽이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를 강행하였다. 《조선인은 일본법률에 복종한다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조선사람들은 흑카도 아이누처럼 멸족시킴을 족하다.》는것이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살인통치의 기본방식이었다. 일제는 이에 기초하여 민족유사정신, 반일외식을 지닌 조선의 애국자들과 중층들을 대대적으로 린망학살하였다. 일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떠선 조선인민의 반일의병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만반의 침략무력을 투입하고 《토벌》작전을 벌리었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06년 이후부터 1911년까지 2800여회에 걸쳐 의병 《토벌》을 강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15만명 이상의 조선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토벌》지역을 초토화하고 일반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의병들의 근거지로 지목된 부락들에 대한 초토화작전과 의병참가자들의 거문, 가족을 모조리 없애기 위한 멸종정책에 의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은 무고한 조선인남녀노소들이 목숨을 잃었다.

1919년 3. 1인민봉기때에는 전국적범위에서 10여만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조선총독》과 조선강점군 사령관은 통산과 라남의 2개 사단부대와 헌병, 경찰을 총동원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일본본토에서 6개 대대병력과 헌병 400명등 더 끌어들이었다. 시위대렬에 총포사격을 가하여 시민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도처에 싸다나면서 《조선사람사냥》에 미쳐달려었다. 일제는 1920년에 조선강점군, 합경남부경찰, 만철수비대 등을 동원하여 간도조선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강행하였다. 간도대 《토벌》로 세상에 알려진 이 참극사상에서 일제는 가장 가혹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3만여명의 조선사람을 죽였으며 온 간도땅을 피바다에 찼고였다. 이러한 살인만행을 강행하고서도 일제는 그것을 《토벌》작전의 《승리》로 떠들면서 라남19사단을 《소탕》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1926년 6. 10단체운동과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 광주학생사건 등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무차별하게 탄압하면서 로동자, 농민, 학생들을 다치는대로 체포투옥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다음에라도 공산주의자가 한명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죽여라.》는 폭언과 《모르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아라.》는 《3광정책》을 떠들면서 조선인 《토벌》에 피는이 되어 날려었다. 1931년 가을과 1932년 봄에 동만 《토벌》을 벌여놓고 조선사람에 대한 살륙만행을 강행하여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제는 또한 각종 폭압기구들을 새로운 악법들을 조작공포하여 조선인민에 초보적인 인권과 자유의 마지막언까지 짓밟았으며 죄없는 사람들에게 생트집을 걸어 제

람치, 련행하였다. 우리 말과 글, 지어 조선사람의 성까지 없애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였으며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을 다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 강행한 만행을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로 략인하고 그것을 폭로단죄하는 죄행록을 발표한다.

노린 대학살만행

포투옥, 고문학살하는 만행을 강행하였다. 1911년부터 제국주의침략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 악법인 《범죄적결명》을 시행하였으며 경찰사수이나 헌병분견대장에게 일정한 범죄사수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12년 3월에는 《조선강육령》을 발표함으로써 가장 야수적인 감옥제도를 조선에 세웠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 1928년에 《신치안유지법》, 1936년에 《사상범보호관찰령》을 조작발포한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상범에방구금법》, 《국가보안법》, 《조선림시보안법》 등 수많은 파쇼살인악법들을 만들어냈다. 일제는 조선민족대학살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식민지통치의 직접적담당자이던 현지집행자인 《조선총독》들을 일본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파쇼분자들로 골라보았다. 일제의 침략군과 헌병, 경찰 등 폭압기구들 그리고 모든 악법들이 배회하여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체포투옥, 고문학살하는대 동원되었음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휘둘러 조선애국자들을 다치는대로 잡아가두는 일대검거선봉을 일으켰다. 1922년 검거건수가 13만 8539건이었다면 1925년에는 92만 159만 1203건으로, 1926년에는 26만 1558건으로 급증하는데 이어갔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검거건수는 87만 5922건, 검거된 조선사람은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1934년에는 《사상범》의 혐의를 들뢰워 6만 655명, 1938년에는 16만 53000명의 조선사람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의 자주정신과 반일의식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강행한 만행들은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인간 상상을 초월한 반인륜적범죄이며 극악한

조선민족의 얼을 유린말살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죄행에서 엄중했던 것은 우리 민족을 《야마도민족화》하기 위해 가장 교활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민족동화정책을 강행실시한것이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궁극적목적은 《첫째도 동화, 둘째도 동화》로 규정하였으며 조선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없애고 민족성을 거세하는것을 그 실현방도로 내놓았다. 일제의 궁극들은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기의것, 역사전통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고서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 자기 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한 다음 《일본의 사적과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것이다.》고 떠들었으며 이와같은 자들도 《...조선력사를 진멸하여버림으로써 그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것이 좋다.》는 강도적범죄를 들고나왔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부터 조선인민을 철저히 노예화하며 민족성을 말살하는것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통치기구들을 총동원하였다.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등 허울 좋은 간판밑에 각종 악법과 락탈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헌병, 경찰 등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배타주의에 기초한 인간살륙죄, 민족말살행위이다. 조선민족에 대한 일제의 대학살만행은 1938년 이후 더욱 로물화되었다. 일제는 이 시기에 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략치, 련행하였으며 그중 41만 7000여명을 전쟁대포암으로, 778만 4800여명을 죽음의 고역장으로,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내몰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하였다. 일제는 《지하대본영》과 비밀군사기지 건설에 동원되었던 수만명의 조선사람을 《비밀보장》의 구실로 집단학살하거나 세 군무기생체실험대상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일제에 의해 략치, 련행하여 끌려갔던 징병자들과 징용자들도 무더기로 죽어갔다. 강점기간 무려 5차례에 걸쳐 우리의 민족고전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이고 수백명의 《학자》들을 방방곡곡에 들이밀어 수많은 고서적들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리조실록》을 비롯한 우리의 민족고전들과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국보들을 외국에 팔아버렸으며 일본문화화사 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일제는 또한 조선사람에게서 민족성과 얼을 뿌리뽑기 위해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악랄한 파쇼학살정책의 일환인 《황국신민화》정책을 로물적으로 실시하였다. 《황국신민화》책들은 1937년 중일전쟁도발을 계기로 하여 더욱 팽창적으로 벌어졌으며 1941년 태평양전쟁도발이후에는 최정점으로 이르렀다. 일제가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는 데서 중요하게 노린것은 조선사람들속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와 《일본족과 조선민족은 하나의 조상을 이룬다.》는 《동조동공》 사상을 강제로 불어넣어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들고나오면서 일본과 조선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예로부터 《하나의 나라》, 《하나의 령토》를 이루었으며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은 하나의 령토 안에서 산 한 민족》이라고 떠들었다. 일제는 《내선일체》와 함께 《동조동공》론을 동시에 강요하였다. 《동조동공》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적사실까지 날조하였으며 저들의 야욕사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자료를 《리본》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을 몇십년동안에 《일본화》하기 위해 《황국신민의 무사도정신》을 강제주입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국민학교 입학생들에게 선함으로 일장기에 대한 노래를 배워주었으며 노기와 흙처가는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조선의 시조원 단군릉 그리고 고려대종무고려의 려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해 단 1기도 남아있고 모조리 도굴되었다고 서술한것은 결코 없지 않다. 일제는 강점후 10년간에 대동강유역과 룡연일대에 무려 1400여기에 달하는 고분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수탈하였다. 략탈기간 문화유물은 도교국립박물관에 진열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수십만점에 달한다.

최대 《룡강》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역대 《룡강》과 《총독》들, 권력을 등에 업은 단체들과 정파들이 략탈에 뛰어 들었다. 대마루에는 조선의 고서적만 해도 무려 2만 3000여권이나 략탈사취하였으며 조선왕궁건축물까지 헐었다 야마구치현에 《조선관》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유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와 관련한 적지

곳곳에 있는 문화유물들을 다치는대로 파괴, 소각하였으며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같은 파쇼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조선의 시조원 단군릉 그리고 고려대종무고려의 려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해 단 1기도 남아있고 모조리 도굴되었다고 서술한것은 결코 없지 않다. 일제는 강점후 10년간에 대동강유역과 룡연일대에 무려 1400여기에 달하는 고분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수탈하였다. 략탈기간 문화유물은 도교국립박물관에 진열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수십만점에 달한다.

최대 《룡강》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역대 《룡강》과 《총독》들, 권력을 등에 업은 단체들과 정파들이 략탈에 뛰어 들었다. 대마루에는 조선의 고서적만 해도 무려 2만 3000여권이나 략탈사취하였으며 조선왕궁건축물까지 헐었다 야마구치현에 《조선관》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유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와 관련한 적지

않은 비화들이 전해지고있지만 조선문화유적유물을 파괴략탈한 일제의 만행과 같은 날강도적인 범죄행위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자기 나라보다 3000년이상 앞선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없애버리기 위해 단군조선을 비롯한 고조선의 역사를 잘라버린 《조선사》를 조작하였다. 조선역사와 관련한 서적들을 《불온도서》라고 하면서 20만부이상 불태워버림으로써 히틀러의 본서관들을 초월한 회세의 만행을 강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사교들을 손에 넣고 세계적인 문화재보인 오대산본 《리조실록》 1800여권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수많은 귀중한 도서들을 일본으로 빼들었으며 강도도사교를 백주에 도끼로 고서적들을 무더기로 죽여냈다. 강점기간 무려 5차례에 걸쳐 우리의 민족고전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이고 수백명의 《학자》들을 방방곡곡에 들이밀어 수많은 고서적들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리조실록》을 비롯한 우리의 민족고전들과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국보들을 외국에 팔아버렸으며 일본문화화사 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일제는 또한 조선사람에게서 민족성과 얼을 뿌리뽑기 위해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악랄한 파쇼학살정책의 일환인 《황국신민화》정책을 로물적으로 실시하였다. 《황국신민화》책들은 1937년 중일전쟁도발을 계기로 하여 더욱 팽창적으로 벌어졌으며 1941년 태평양전쟁도발이후에는 최정점으로 이르렀다. 일제가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는 데서 중요하게 노린것은 조선사람들속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와 《일본족과 조선민족은 하나의 조상을 이룬다.》는 《동조동공》 사상을 강제로 불어넣어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들고나오면서 일본과 조선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예로부터 《하나의 나라》, 《하나의 령토》를 이루었으며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은 하나의 령토 안에서 산 한 민족》이라고 떠들었다. 일제는 《내선일체》와 함께 《동조동공》론을 동시에 강요하였다. 《동조동공》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적사실까지 날조하였으며 저들의 야욕사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자료를 《리본》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을 몇십년동안에 《일본화》하기 위해 《황국신민의 무사도정신》을 강제주입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국민학교 입학생들에게 선함으로 일장기에 대한 노래를 배워주었으며 노기와 흙처가는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조선의 시조원 단군릉 그리고 고려대종무고려의 려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해 단 1기도 남아있고 모조리 도굴되었다고 서술한것은 결코 없지 않다. 일제는 강점후 10년간에 대동강유역과 룡연일대에 무려 1400여기에 달하는 고분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수탈하였다. 략탈기간 문화유물은 도교국립박물관에 진열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수십만점에 달한다.

최대 《룡강》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역대 《룡강》과 《총독》들, 권력을 등에 업은 단체들과 정파들이 략탈에 뛰어 들었다. 대마루에는 조선의 고서적만 해도 무려 2만 3000여권이나 략탈사취하였으며 조선왕궁건축물까지 헐었다 야마구치현에 《조선관》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유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와 관련한 적지

곳곳에 있는 문화유물들을 다치는대로 파괴, 소각하였으며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같은 파쇼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조선의 시조원 단군릉 그리고 고려대종무고려의 려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해 단 1기도 남아있고 모조리 도굴되었다고 서술한것은 결코 없지 않다. 일제는 강점후 10년간에 대동강유역과 룡연일대에 무려 1400여기에 달하는 고분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수탈하였다. 략탈기간 문화유물은 도교국립박물관에 진열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수십만점에 달한다.

최대 《룡강》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역대 《룡강》과 《총독》들, 권력을 등에 업은 단체들과 정파들이 략탈에 뛰어 들었다. 대마루에는 조선의 고서적만 해도 무려 2만 3000여권이나 략탈사취하였으며 조선왕궁건축물까지 헐었다 야마구치현에 《조선관》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유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와 관련한 적지

곳곳에 있는 문화유물들을 다치는대로 파괴, 소각하였으며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같은 파쇼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조선의 시조원 단군릉 그리고 고려대종무고려의 려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해 단 1기도 남아있고 모조리 도굴되었다고 서술한것은 결코 없지 않다. 일제는 강점후 10년간에 대동강유역과 룡연일대에 무려 1400여기에 달하는 고분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수탈하였다. 략탈기간 문화유물은 도교국립박물관에 진열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수십만점에 달한다.

최대 《룡강》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역대 《룡강》과 《총독》들, 권력을 등에 업은 단체들과 정파들이 략탈에 뛰어 들었다. 대마루에는 조선의 고서적만 해도 무려 2만 3000여권이나 략탈사취하였으며 조선왕궁건축물까지 헐었다 야마구치현에 《조선관》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유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와 관련한 적지

조선민족의 얼을 유린말살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죄행에서 엄중했던 것은 우리 민족을 《야마도민족화》하기 위해 가장 교활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민족동화정책을 강행실시한것이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궁극적목적은 《첫째도 동화, 둘째도 동화》로 규정하였으며 조선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없애고 민족성을 거세하는것을 그 실현방도로 내놓았다. 일제의 궁극들은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기의것, 역사전통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고서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 자기 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한 다음 《일본의 사적과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것이다.》고 떠들었으며 이와같은 자들도 《...조선력사를 진멸하여버림으로써 그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것이 좋다.》는 강도적범죄를 들고나왔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부터 조선인민을 철저히 노예화하며 민족성을 말살하는것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통치기구들을 총동원하였다.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등 허울 좋은 간판밑에 각종 악법과 락탈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헌병, 경찰 등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배타주의에 기초한 인간살륙죄, 민족말살행위이다. 조선민족에 대한 일제의 대학살만행은 1938년 이후 더욱 로물화되었다. 일제는 이 시기에 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략치, 련행하였으며 그중 41만 7000여명을 전쟁대포암으로, 778만 4800여명을 죽음의 고역장으로,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내몰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하였다. 일제는 《지하대본영》과 비밀군사기지 건설에 동원되었던 수만명의 조선사람을 《비밀보장》의 구실로 집단학살하거나 세 군무기생체실험대상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일제에 의해 략치, 련행하여 끌려갔던 징병자들과 징용자들도 무더기로 죽어갔다. 강점기간 무려 5차례에 걸쳐 우리의 민족고전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이고 수백명의 《학자》들을 방방곡곡에 들이밀어 수많은 고서적들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리조실록》을 비롯한 우리의 민족고전들과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국보들을 외국에 팔아버렸으며 일본문화화사 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일제는 또한 조선사람에게서 민족성과 얼을 뿌리뽑기 위해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악랄한 파쇼학살정책의 일환인 《황국신민화》정책을 로물적으로 실시하였다. 《황국신민화》책들은 1937년 중일전쟁도발을 계기로 하여 더욱 팽창적으로 벌어졌으며 1941년 태평양전쟁도발이후에는 최정점으로 이르렀다. 일제가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는 데서 중요하게 노린것은 조선사람들속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와 《일본족과 조선민족은 하나의 조상을 이룬다.》는 《동조동공》 사상을 강제로 불어넣어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들고나오면서 일본과 조선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예로부터 《하나의 나라》, 《하나의 령토》를 이루었으며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은 하나의 령토 안에서 산 한 민족》이라고 떠들었다. 일제는 《내선일체》와 함께 《동조동공》론을 동시에 강요하였다. 《동조동공》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적사실까지 날조하였으며 저들의 야욕사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자료를 《리본》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을 몇십년동안에 《일본화》하기 위해 《황국신민의 무사도정신》을 강제주입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국민학교 입학생들에게 선함으로 일장기에 대한 노래를 배워주었으며 노기와 흙처가는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조선의 시조원 단군릉 그리고 고려대종무고려의 려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해 단 1기도 남아있고 모조리 도굴되었다고 서술한것은 결코 없지 않다. 일제는 강점후 10년간에 대동강유역과 룡연일대에 무려 1400여기에 달하는 고분을 파헤치고 유물들을 수탈하였다. 략탈기간 문화유물은 도교국립박물관에 진열된 4만여점을 비롯하여 수십만점에 달한다.

최대 《룡강》이었던 이도 히로부미를 비롯한 역대 《룡강》과 《총독》들, 권력을 등에 업은 단체들과 정파들이 략탈에 뛰어 들었다. 대마루에는 조선의 고서적만 해도 무려 2만 3000여권이나 략탈사취하였으며 조선왕궁건축물까지 헐었다 야마구치현에 《조선관》을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유물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와 관련한 적지

책사가 깃들여있는 조선의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바꾸는것도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에 의하여 조선민족은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민족으로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못하는가, 유린당한 민족성을 부활시키는가 부활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창세기개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으며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것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운명이었다. 이 모든것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인 조선사람의 민족성과 얼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철저히 《일본화》, 식민지노예화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강행된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범죄이러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족의 삶의 터전을 파괴략탈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죄행에서 용납될수 없는것은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물적자원략탈행위를 강행한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던 그들의 기본생산수단과 생존수단은 토지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초시기 벌쳐 토지강탈에 매여달렸으며 《한일합병》후 보다 로물화하였다. 《토지소유권의 조사확인》이라는 명목으로 《토지조사령》을 선포하고 《수속위원》, 《증거불명》 등의 구실을 붙여 100여만정본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를 비법적으로 강탈하였다. 한편 《산미증식계획》, 《공출》 등의 간판으로 3900만정의 쌀을 략탈해갔다. 이에 대해 도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조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600만명의 조선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강점물 한것은 쌀의 공출과 사람의 공출이다. ...1937년 지나사변을 일으켰을 때 판관들은 다같이 쌀은 문제없다고 말하고있었다. 왜냐하면 ... 이 일본내지의 4개 섬과 조선과 대만을 합치면 가장 적은 때에는 800만석, 많을 때에는 1500만석을 가져왔다. 이것을 조선내행된, 대만은행된이라는 종이장으로 삼았다. 특히 금은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일본의 수탈자들이 지불당도가 없는 판리폐인 《조선은행권》으로 쌀을 싣는것은 그들자신이 말한바와 같이 조선의 쌀을 공짜로 빼앗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쌀수탈의 강도적성격을 쌀 《공출》제도를 실시하던 시기에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그 시기 일본수탈자들은 조선농민들에게서 생산비의 9%도 안되는 월급으로 쌀을 앗아갔다. 그 판리폐마저도 《전지지금》, 《애국공채》의 명목으로 걸어들이었다. 조선농민들이 자기 살밭이처럼 중히 여기던 소를 194만 3000여마리나 팔고가 도살해버렸다. 일제의 농촌략탈행위로 말미암아 조선의 농촌들은 만성적인 기아지대로 되었으며 출근기는 《년례행사》처럼 들이닥쳤다. 이렇게 되어 우리 나라에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조선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 곳을 찾아 이국 땅으로 류탈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1918년 5월 1일 《림야조사령》을 조작공포하고 우리 나라의 림야면적 1600만정보가운데서 1300만정보를 《국유림》의 명목으로 빼앗았으며 나머지는 일본서주들과 친일주구들의 소유로 넘겼다. 1902년부터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7억 6940만 2347㎡에 달하는 막대한 량의 목재를 략탈하였다. 《조선총독부》에 직속된 4개의 영림장과 26개의 벌목사업소, 100여개의 벌목작업장을 통해 삼양강과 두만강연안에 울창하였던 200여만정보의 대면적림을 파괴하였으며 13개 도청산하에 조직된 영림과 미쯔이요스, 스미모토제분 등 일본의 대재벌들과 기업체들을 내세워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산림자원을 략탈해갔다. 《조선방림령》, 《어업령》을 비롯한 식민지략탈법들을 조작공포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가장 악착한 방법으로 굶여갔다.

일제는 또한 피폐대양이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면 지난 기간 북부평야를 밟고 동족과 만만대 대대 모두 간첩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활동을 《불법》, 《리직》으로 범죄시하여 파쇼인합의 칼을 들이대었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다. 더우기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에서의 국제회의를 불공화국모락수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파쇼폭압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지 않으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괴보수세당이 꾸미면 간첩사건과 반민적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와 단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

어려서도 남조선에서 진행된것은 반공화국모락수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파쇼폭압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지 않으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괴보수세당이 꾸미면 간첩사건과 반민적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와 단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

어려서도 남조선에서 진행된것은 반공화국모락수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파쇼폭압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지 않으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괴보수세당이 꾸미면 간첩사건과 반민적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와 단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

어려서도 남조선에서 진행된것은 반공화국모락수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파쇼폭압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지 않으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괴보수세당이 꾸미면 간첩사건과 반민적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와 단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

조선중앙통신사

주제 99 (2010) 년 11 월 16 일 평 양

대화회방군들의 희떠운 소리

머칠것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기간 남조선당국자와 미국대통령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여기에서 남조선당국자는 북이 《핵포기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6자회담을 시작할수 있다.》느니,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이는데가 남북관계발전의 출발점》이라느니 워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꾀반을 또다시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조를 청탁하였다. 미국의 뒤받침이 없이는 유지될수 없는 남조선 《정권》의 가련한 처지를 모르바나 아니다. 하지만 6자회담문제와 북남관계문제에서 계속 억지주장을 내세우고 대결자세를 고집하면서 서로의 힘을 빌어 대화와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남조선당국의 집요한 책동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이번엔 남조선당국자가 우리를 결코 이러공자리용 횡행시킬것은 6자회담개개와 북남관계개개의 장애물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6자회담은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것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어떤 특정국가만이 의무를 지니는 일이 있을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반제국이상이나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고있는 장본인이다. 남조선당국은 력대로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허용하고 남조선은 극동회의의 핵무기고로 전락시켰으며 의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문제는

에당중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며 6자회담이러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는것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조치이다. 우리는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변함없는 의지에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여 족하였다. 우리는 6자회담이래 준비되어 있다.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때문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모락수 《천안》호 사건을 꾸며내고 그것을 구실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획악으로 격화시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천안》호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을 열수 없다고 하면서 회담개개의 앞길에 아무든 어떤 장애를 던지겠다고 그 누구의 《도발》에 따른 《대비태세》를 떠벌이며 북침전쟁불장난수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지않아 우리는 그 무슨 《의지》와 《행동》이 어찌나저찌 하니 하며 6자회담개개를 질질 끌고있다. 북남관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최근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계기로 하고 실현시키는 등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와 판관 다르게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말로는 《진정성있는 자세》를 운운하면서도 모략으로 일관된 《천안》호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북남대화에 장애를 가로지르고있다. 현실은 6자회담개개가지체되고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있는것이 누구때문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6자회담과 북남관계에 관심이 있는듯이 색채를 덧지만 그 진색은 갈수록 짙다. 지금 대에는 대화와 긴장완화로 흐르고있다. 6자회담의 개개와 북남관계개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로 하여 미국과 남조선이 바빠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에 야부총중하면서 동족대결에만 눈이 벌개 들어치던 남조선당국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였다. 그로부터 그들은 우리를 더무니없이 걸고들으로써 여론을 오토하고 저들의 반대책동립장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는것이다. 미국 역시 앞으로의 사태는 《남북관계개개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대변자, 꼭두각시로서 나서서 우리에게 대한 압박농움을 연출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편을 들어주고있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결과 압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다. 지연전술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외 대화를 반대하는 저들의 망령이 세운으로 제발들 찍는 결판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 철 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967호

최근 남조선의 파쇼공안당국이 그 무슨 간첩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공을 조작 발표하여 내외의 커다란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피괴시범지방청정은 《한총련》 조국평일위원회 건 간부가 2003년 부두 합법적으로 북남선언하 북남의 통일행사와 철수사업에 참가한것을 트집잡아 북의 각종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에 참여했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발표하였다. 파쇼공안당국은 《이번엔 학생운동단체의 간부가 간첩활동에 하다 적발된것은 처음》이라느니, 《지난 시기 남북교류협력의 리직활동의 장으로 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당조법칙 고이대며 배우 인물들이 더 있을수 있으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일대 검거선봉을 일으키려고 획책하고있다는가를 다

이것은 남조선에 살벌한 파쇼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각계층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화해협력과 자주운동의 기운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려는 용납 못할 반민적일,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6. 15 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사이에서 당국과 민간을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특히 북과 남의 청년학생단체들이 합법적으로 만나 통일행사를 도 진행하면서 공동선언리행에 앞장서었다. 그런데 남조선의 반동일국우 보수세력이 오늘날에 와서 그때의 북남청년학생들의 통일론의와 접촉을 그 누구의 《지령》을 받는 공간》으로 날조하고 《학생운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부에 진달한것》으로 자오 하는것은 남침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는가를 다

시급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또한 피폐대양이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면 지난 기간 북부평야를 밟고 동족과 만만대 대대 모두 간첩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활동을 《불법》, 《리직》으로 범죄시하여 파쇼인합의 칼을 들이대었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다. 더우기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에서의 국제회의를 불공화국모락수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파쇼폭압행위를 시급히 끝장내지 않으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괴보수세당이 꾸미면 간첩사건과 반민적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와 단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

이것은 남조선에 살벌한 파쇼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각계층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화해협력과 자주운동의 기운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려는 용납 못할 반민적일,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6. 15 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사이에서 당국과 민간을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특히 북과 남의 청년학생단체들이 합법적으로 만나 통일행사를 도 진행하면서 공동선언리행에 앞장서었다. 그런데 남조선의 반동일국우 보수세력이 오늘날에 와서 그때의 북남청년학생들의 통일론의와 접촉을 그 누구의 《지령》을 받는 공간》으로 날조하고 《학생운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부에 진달한것》으로 자오 하는것은 남침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는가를 다

이것은 남조선에 살벌한 파쇼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각계층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화해협력과 자주운동의 기운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려는 용납 못할 반민적일,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6. 15 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사이에서 당국과 민간을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특히 북과 남의 청년학생단체

